2015
대전 청년 보고서
DAEJEON YOUTH REPORT

대전의 거의 모든 청춘에 관한 보고서

대전 청년 인구현황

⋮

노동 주거

소득 지출

직업 진로

여가 인간관계

CONTENTS

02 대전 청년 공동체 활동

05 대전 청년 인포그래픽

07 대전 청년 인구현황

08 노동

10 주거

12 소득 / 지출

16 직업 / 진로

19 여가

20 인간관계

21 청년과 지역사회

22 대전 청년 정책 현황

26 OECD Youth Action Plan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계는 새로운 소음을 만들어 낸 사람들 주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사람들 주위를 돌고 있다. 세계는 소리없이 돌고 있는 것이다.

- 프리드리히 니체 -

환희로 가득할 것만 같았던 20살의 첫 걸음, 자유를 외친 짧은 외마디 뒤엔 밥 먹는 일부터 꿈꾸는 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88만원세대, 7포세대에 이어 N포세대까지 사회가 청년을 부르는 말들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청년들의 삶을 잘 대변한다. 청년들에게 삶은 어느덧 필연적으로 감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함께 모여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재구성해 나가는 움직임도 있다. 청년잡지와 언론을 만들고, 퍼포먼스를 구상하고, 함께 책을 읽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강연과 캠프를 기획하기도 한다. 서툴기 때문에 일이 더 고되고, 그 결과가 부족 하거나 수포로 갈 때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과정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객체,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만의 문화와 꿈을 키우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청년들이 모일수록 이런 다양한 혁신적인 삶의 시도들을 쉽게 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여기 모여 즐기고 성장하는 일부터 또 다른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일까지 다양한 시도들을 시작하려한다. 그것은 같이 밥 먹는 일도,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그 무엇도 될 수 있다. 오늘 청년들이 청년들 스스로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일에도 우리를 위한 삶은 어려울 것이다. 함께하면 발걸음이 가벼워 질 수 있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

지난 2014 대전청년보고서는 지역 내에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화제가 되기도 인용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회가 청년들에게 주는 해결책은 여전히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꼬치꼬치 물었다. 이제 막 대전에서 시작된 청년의 상상들이 날개를 펴는데 이번 2015년 청년보고서가 힘이 되기를 바란다.

대전청년혁신플랫폼 **청년고리**

대전청년온라인네트워크에서 시작한 '청년고리'는 2년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에서는 3,828명 (2015년 11월 기준)이 가입되있는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1,127명의 청년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가볍게 밥을 먹는 일부터 문화와 청년문제에 대한 컨퍼런스, 청년의 정책을 고민하는 일까지 다양하고 번뜩였다. '청년고리'는 60여개의 청년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청년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이자 지역의 청년혁신플랫폼이다. 지역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풀뿌리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코워킹스페이스 **벌집**

'벌집'은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청년과 시민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공동아지트이다.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벌집은 2011년 이후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 지식공유 운동인 TEDxDaejeon을 비롯해 40개의 지역 청년 커뮤니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시민들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고, 커뮤니티를 넘어서 창업을 해내는 청년들이 등장하는 등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또한 코워킹비자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200여개의 창의적 커뮤니티와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CUASIA(Coworking Unconference ASIA 2015)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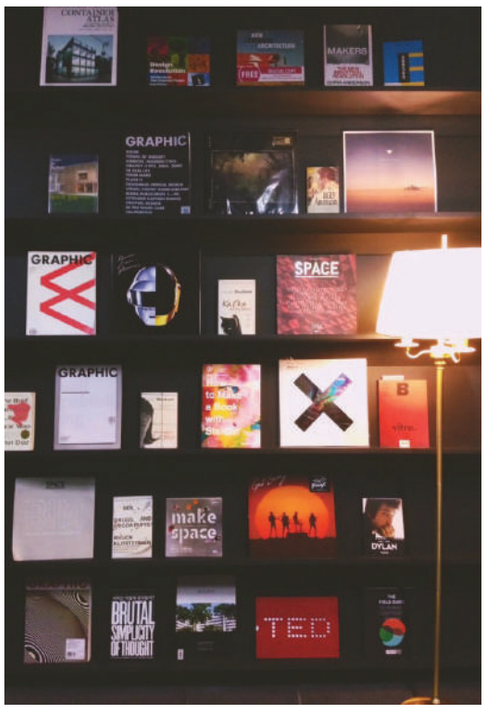
꿈꾸는 사람들의 집 **꿈꿀통**

꿈꿀통은 '꿈꾸는 사람들의 집' 이라는 뜻으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지향하는 커뮤니티이다. 꿈꿀통은 청년이 경제적으로 독립 할 수 없는 주거환경, 원룸촌에서 단절되어 삶이 아닌 잠자는 공간으로 전락한 주거 등을 '비정상주거' 라 정의하고 청년주거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꿈꿀통은 청년의 비정상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실험으로 충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셰어하우스 꿈꿀통 1호점을 마련했다. 1호점을 통해 꿈꿀통은 청년의 비정상주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 주거협동조합 회원을 모집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와 함께하는 공동체토지신탁(CLT)을 모델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공유주방 **비밀(BeeMeal)**

비밀(Bee Meal)은 '매일 다른 셰프, 매일 다른 음식' 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방이다.예비음식점 창업자나 외식조리학과 같이 자신의 음식을 팔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마음껏 자신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다 손님들은 예비 셰프들의 독창성 있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 Cook the opportunity 기회를 요리하는 Bee Meal은 사람들과 기회를 공유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어은동 101-1번지 1층에 오픈했다.

커뮤니티 북 스토어 **유어왓츄리드**



YOU ARE WHAT YOU READ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Community Bookstore' 이다. 책과 생각을 펼쳐 놓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만남이 된다는 모토로 '책' 을 사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을 꿈꾼다. YOU ARE WHAT YOU READ는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지식을 통한 사회의 변화' 를 목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유성구 어은동 107-1 1층에 있다. 그가 묻는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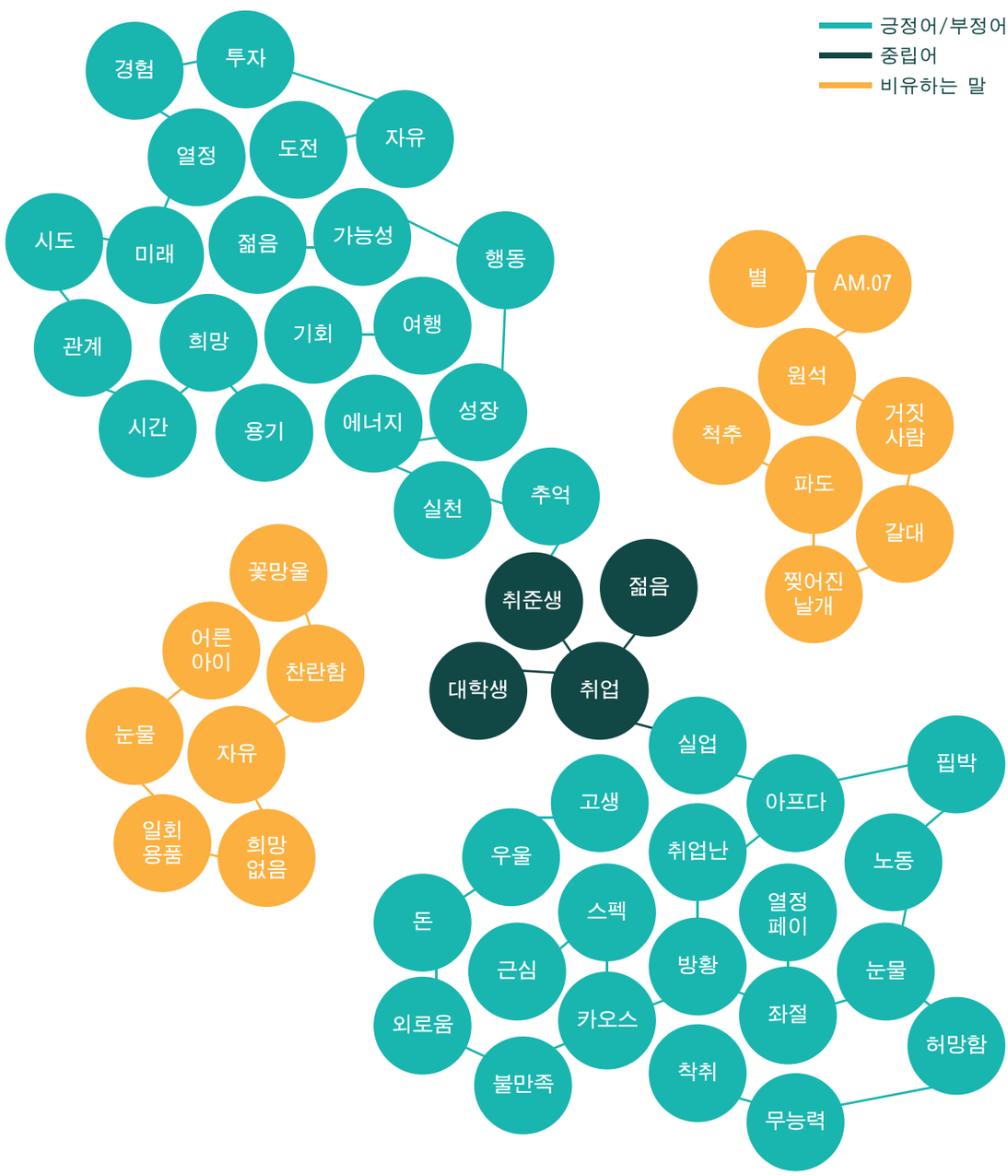
청춘매거진 **보슈(BOSHU)**

'보슈(BOSHU)' 는 충청도 방언으로 보라는 뜻이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청춘잡지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와 매체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균형잡힌 시각과 올바른 사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VOL.4를 출판했다. 대전 전 지역의 청년 밀도가 높은 500여 곳에 배포되고 있다. 올 11월에는 다음세대재단의 체인지온 컨퍼런스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주관했다.

대전 청년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대전청년혁신플랫폼인 청년고리가 18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청의 인구주태총조사, 대전광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말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No Country for Youth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
청춘(靑春)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 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젊은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전적으로는 이토록 푸르고 싱그러운 의미일 진대, 이 시대 청년에게 붙는 이름은 그리 싱그럽지가 않다.

언제부턴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5포 세대’ 를 넘어 ‘7포 세대’ 를 이야기 한다. 7포 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직업 그리고 꿈까지 포기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이제는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할지 몰라 ‘N포 세대’ 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학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높은 학자금 부담에 직면하고, 취업난에 졸업에서 취업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결혼과 내 집 마련, 출산, 양육까지 스스로의 ‘노력’ 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 사이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여유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버티게 할 꿈과 희망을 갖는 것조차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데서 희망은 싹틀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청년들에게 붙은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 세대의 새로운 이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대전 청년인구 현황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39세로 정의

전국 인구 중 청년 비율 20.6%

8개 특·광역시 평균 21.9%

8개 도 평균 19.4%

대전시 전체 인구 1,525,656명 중 대전시 청년 인구 466,663명 (남 240,836 / 여 225,827)

30.6% **대전 청년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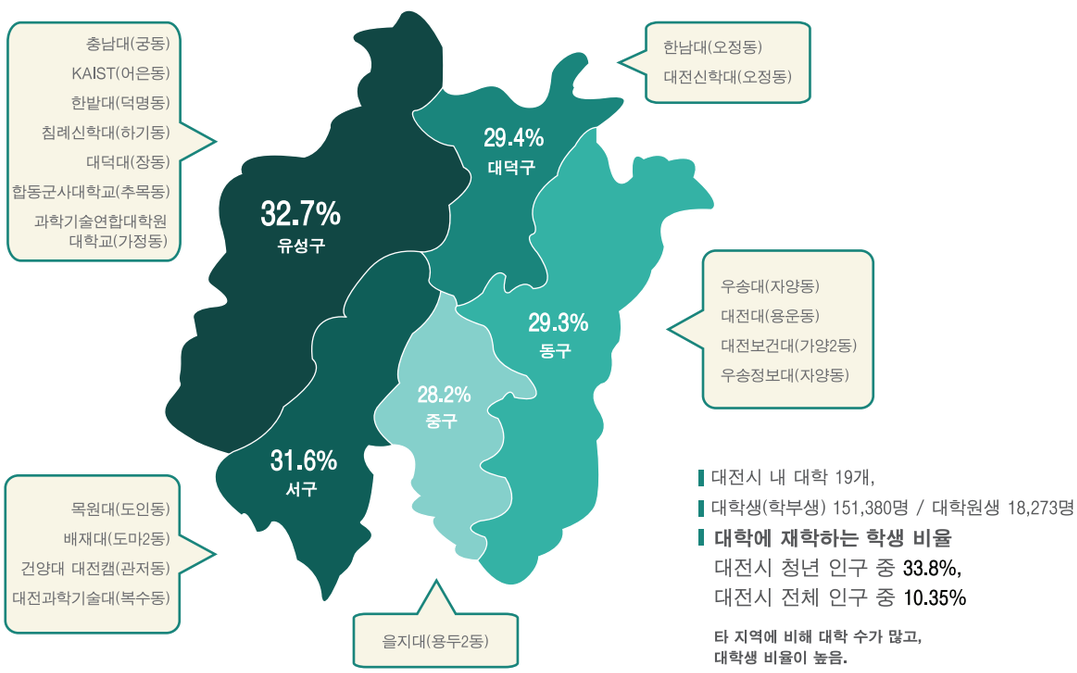
전국 17개 시·도 중 2위

출처 | 2015년 2분기 대전시 주민등록인구통계

주민등록상 구별 청년인구 밀도

구별 청년인구 밀도(순위)

1 2 3 4 5



- 대전시 내 대학 19개,
- 대학생(학부생) 151,380명 / 대학원생 18,273명
-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비율**
  대전시 청년 인구 중 **33.8%**,
  대전시 전체 인구 중 **1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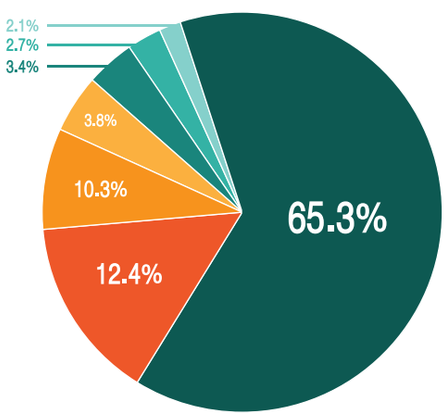
타 지역에 비해 대학 수가 많고, 대학생 비율이 높음.

노동

#열정페이 세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열정’ 이라는 구실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세대

아르바이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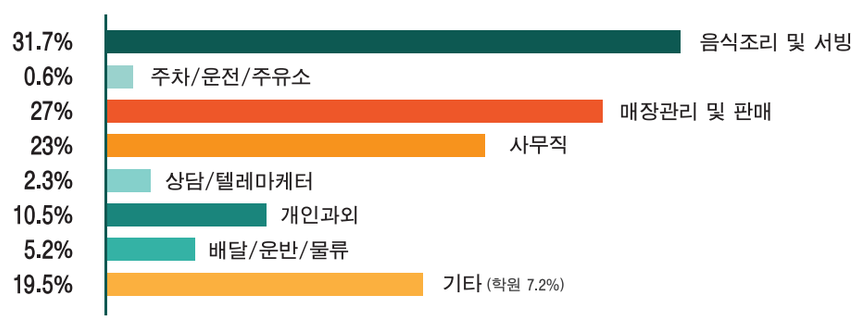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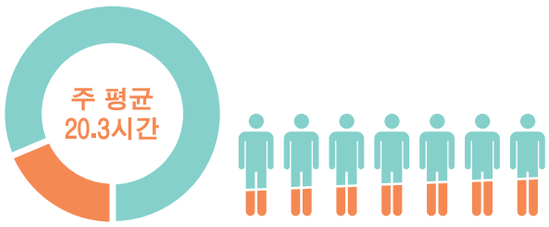
- 저축, 목돈 마련
- 사회경험
- 취미생활
- 학비, 등록금 마련
- 기타
- 스펙쌓기

대전 청년들은 생계와 미래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생활비(65.3%), 학비/등록금(3.6%),저축/목돈마련(12.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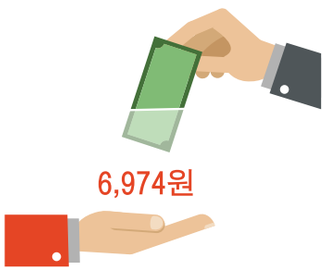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종류(중복응답)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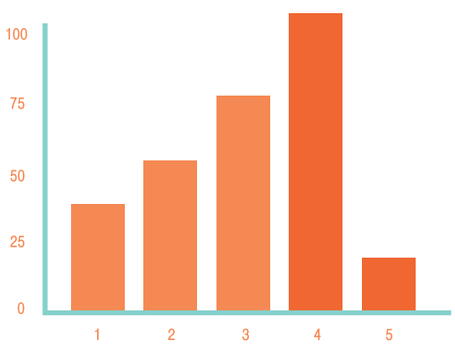
평균 아르바이트 시급



조사 결과 25.3%, 청년 4명 중 1명은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최저시급(5,580원) 미달로 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은 45.2%, 수당 없는 초과근무 4.4%일 정도로 청년들은 합당한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의 노동 영역에서도 청년들은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 141,572원(6,974원*20.3시간)

진로준비와 아르바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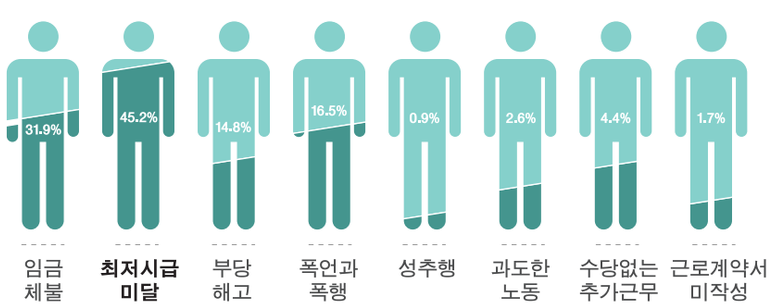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진로준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정도 인가?

1	**전혀 지장받지 않는다.**	12.7%
2	·	17.2%
3	·	24.2%
4	·	38.9%
5	**매우 지장받는다.**	7%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45.9%가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4점과 5점(매우 지장받는다)에 체크한 청년 중 76.36%는 육체노동(음식조리/서빙, 매장관리/판매,배달/물류)을 하는 청년들이었다.

부당대우와 아르바이트

31.7%의 청년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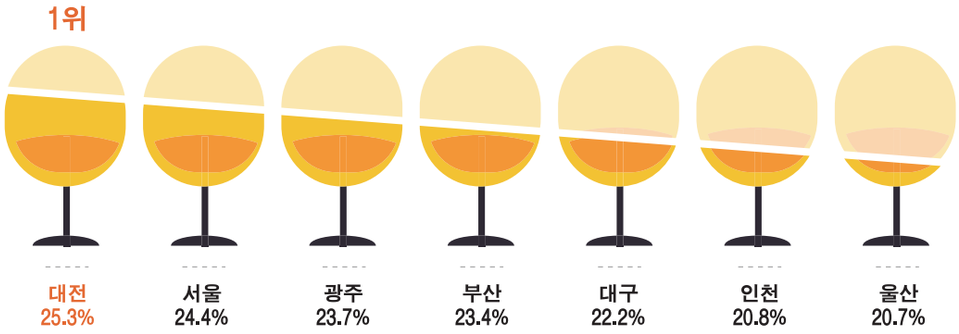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총합이 100%가 안될 수 있음

주거

#비정상주거 세대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없고, 미래를 위한 다른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세대

대전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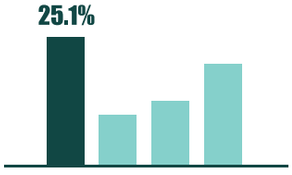


대전 1인 가구 비율 25.3%, 전국 1위
35세 미만 가구주 비율 12.5%, 전국 1위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30년 전보다 10배 증가한 것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4인가구(28.0%)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10년엔 1인가구(25.3%)가 4인가구(23.3%)를 추월했다.

출처 | 2013 대전의 사회지표, 대전광역시

대전시 청년 주거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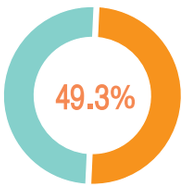
- **대전시 청년 1인 가구 주거빈곤율 25.1% (53,017명 중 13,310명)**
  — 전국 2위
- 대전시 청년 (1인 가구 이외) 주거빈곤율 13.1% (314,092명 중 41,262명)
- 전국 청년 주거빈곤율 14.7%
- 전국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 23.6%

청년들은 쪽방이나 원룸, 고시원 등 법률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면서도 높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 2010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면적(14m2) 이하 및 옥탑, 지하에 사는 '주거 빈곤층' 인구가 전국에 580만 명. 이 중 20~34세 청년층은 132만 명에 달한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인 경우를 고려하면 공급 수준이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거에 입주할 상황이 안된다는 의미다(대전시의 경우, 101.4%; 2013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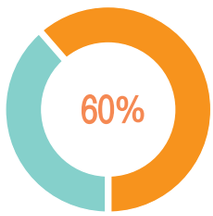
※ 주거빈곤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1인당 14㎡)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경우/지하,옥탑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경우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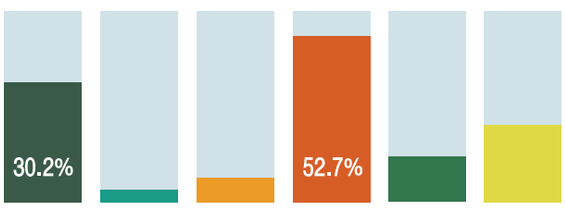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이상인 1인 청년가구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

청년 주거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희망이 아니라 주거의 문제가 나아가 결혼이나 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학교 직영기숙사	8.6%
학교 민간기숙사	5.6%
하숙	1.8%
자취	30.2%
가족 또는 친척과 동거	52.7%
기타	1%

[기숙사]

한 학기 기숙사 평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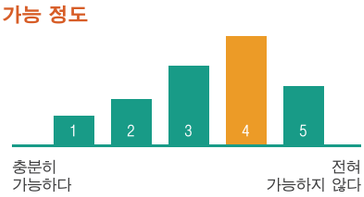
직영 기숙사
66.46만원 (한 달 약 18.98 만원)

민간 기숙사(BTL)
97.09만원 (한 달 약 27.74 만원)

부모님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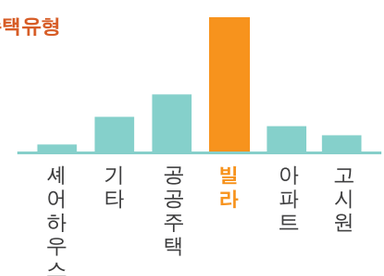
예	87.5%
아니요	12.5%

자립가능 정도



[자취/하숙]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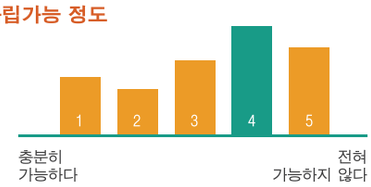


자취 평균 월세 29만3103원
자취 평균 보증금 319만5455원
하숙 평균 월세 36만909원
하숙 평균 보증금 100만원

부모님 지원 여부

예	68.6%
아니요	31.4%

자립가능 정도



소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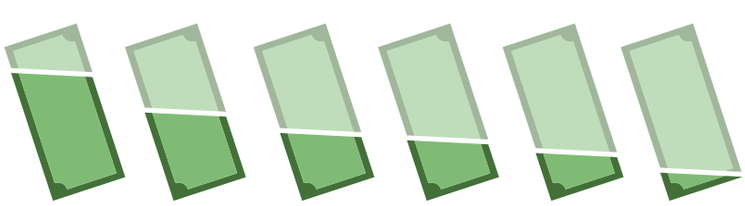
#모래성 세대

빚으로 쌓아 올린 청춘
실업문제와 맞물려 높은 학자금, 주거비, 생활비로 인해
재산 축적이 힘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세대

한 달 평균 생활비 (주거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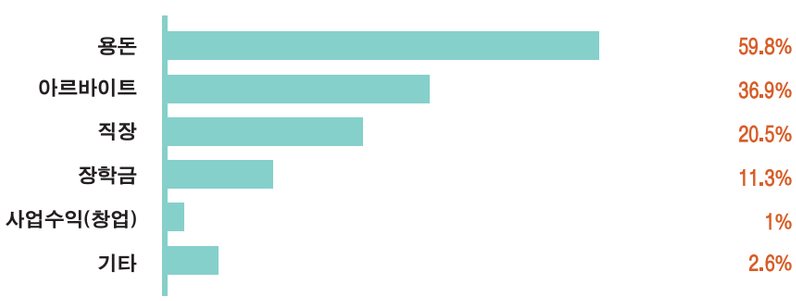
전체 청년 평균 생활비 44만 7759원
직장인 평균 생활비 60만 9624원
학생 평균 생활비 38만 3973원
무직 평균 생활비 50만 4300원

주거비 제외 생활비에서 지출이 제일 많은 항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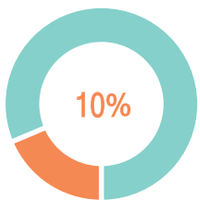


식비	유흥비	교통비	교육비	의류비	기타
79.2%	6.1%	4.6%	4.5%	3.6%	2%

주요 소득 출처



대전시 청년 빈곤율



대전시 청년 빈곤율 10% (약 49,300명)
전국 청년(20-29세) 빈곤갭 28.6% (2012년 기준)

무 직/학생 등과 같은 개인특성을 가진 집단에서는 빈곤갭이 37.1%로
근로 연령층(18-64세)의 빈곤갭이 30.0%인 것에 비해, 더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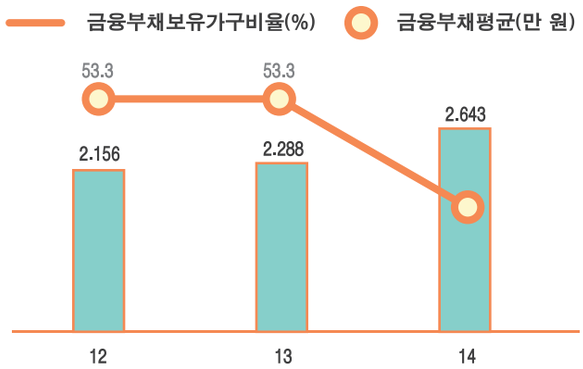
* 빈곤율 계산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얻는 인구의 수/전체 인구 수 * 100
*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선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출처 | 통계청, 2015

전국 청년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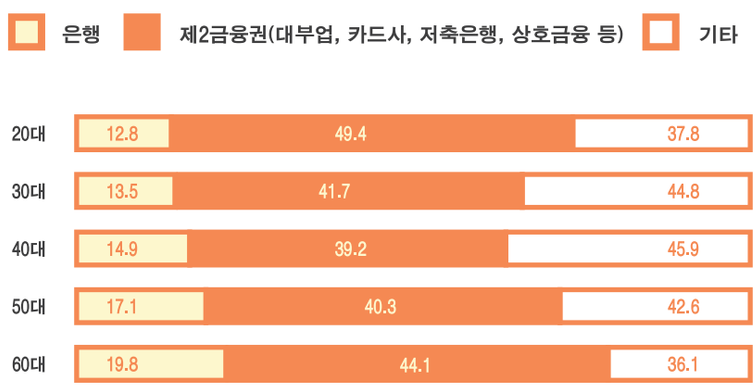
2012~2014년 청년 금융부채 평균 금액 및 보유 비율 비교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연령대별 채무이용 현황(%)

출처 | 채무조정자 23만명 분석, 조선일보, 2014



출처 | 청년허브 2014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학자금

높은 학자금

대학 등록금 : 세계 최고 수준, OECD 36개국 중 2위

대전 주요 대학교 등록금/장학금 비교 (2015학년도 기준)

대학별 등록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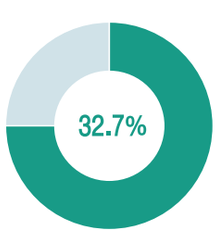
유형	이름	2015년도 등록금(연간)	2014년도 등록금(연간)	전년대비 증감
국립	충남대학교	4,153,700원	4,139,500원	↓
	한밭대학교	4,450,900원	4,450,900원	—
사립	대전대학교	7,208,200원	7,200,100원	↑
	목원대학교	7,200,800원	7,197,400원	↑
	배재대학교	7,091,000원	7,091,400원	↑
	한남대학교	7,194,400원	7,200,900원	↑

대학별 장학금 현황

유형	이름	2015학년도 1인당 장학금	2014학년도 1인당 장학금	2013학년도 1인당 장학금
국립	충남대학교	2,432,500원	2,023,400원	1,807,900원
	한밭대학교	2,452,600원	1,855,300원	1,583,000원
사립	대전대학교	2,978,500원	2,713,500원	1,809,600원
	목원대학교	3,105,400원	2,704,300원	2,092,800원
	배재대학교	3,260,600원	2,434,800원	2,253,000원
	한남대학교	2,916,300원	2,357,900원	2,023,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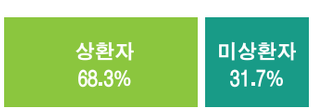
대학별 학자금 대출 현황

유형	이름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
국립	충남대학교	10.2
	한밭대학교	10.9
사립	대전대학교	15.5
	목원대학교	18.4
	배재대학교	15.4
	한남대학교	14.9



전국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비율

든든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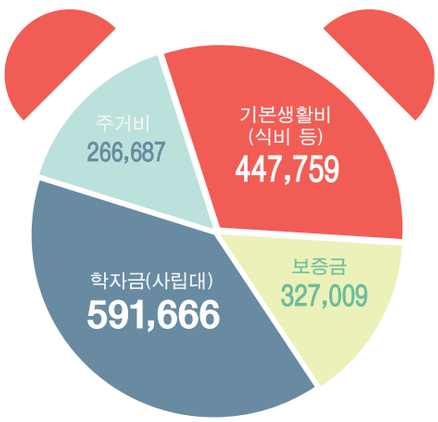


든든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추이

대전 청년 재정 시계

자본주의 사회에선 시간도 사야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같지 않다. 재정 빈곤은 시간 빈곤을 낳는다. 청년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을 잃고 있다. 대전 대학생의 한 달 총 생활비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보았다.

대전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



자취하는 사립대생 A모양
1,399,580원 + a (대출 이자 등)
200.7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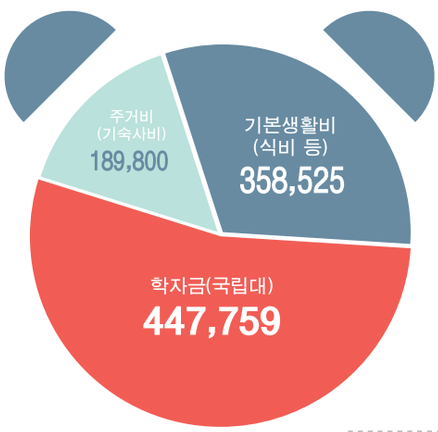
- 학자금(사립대)
- 기본생활비(식비 등)
- 주거비(월세)
- 보증금

보증금과 학자금은 1년 평균 액수를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 보증금 = 자취 평균 보증금(319만 5,455원) ÷ 평균 계약기간(12개월)
* 학자금 = 사립대 평균 1년 학자금(709만 9,992원) ÷ 12개월

이 돈을 (부모님 등에 의지하지 않고) 전액 스스로 벌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0.7 시간, **하루 평균 9.6시간의 아르바이트를 매일 해야 한다.**

*한 달 아르바이트 시간 = 총 생활비(1,399,580원) ÷ 평균 아르바이트 시급(6,974원)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 = 한 달 아르바이트 시간(200.7) ÷ 21(일)

대전 청년들의 한 달 생활비



학교 직영 기숙사에 사는
국립대생 B모군
996,084원 + a (대출 이자 등)
142.8시간

- 기본생활비(식비 등)
- 학자금(국립대)
- 주거비(기숙사비)

보증금과 학자금은 1년 평균 액수를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 기숙사비 = 한 달 평균 학교 직영 기숙사비 (18만 9800원) ÷ 평균 계약기간(12개월)
* 학자금 = 국립대 평균 1년 학자금(430만 2,300원) ÷ 12(개월)

이 돈을 (부모님 등에 의지하지 않고) 전액 스스로 벌기 위해서는 한 달에 142.8 시간, **하루 평균 6.8시간의 아르바이트를 매일 해야 한다.**

*한 달 아르바이트 시간 = 총 생활비(996,084원) ÷ 평균 아르바이트 시급(6,974원)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 = 한 달 아르바이트 시간(142.8시간) ÷ 21(일)

직업/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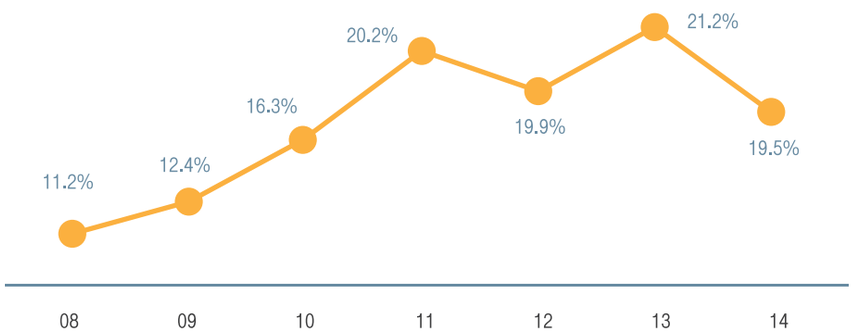
#실업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란, 중위(中位)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10년 전보다 6.1%p나 높아졌다. 이는 각종 지표들이 일관되게 가리키듯,
청년들이 질이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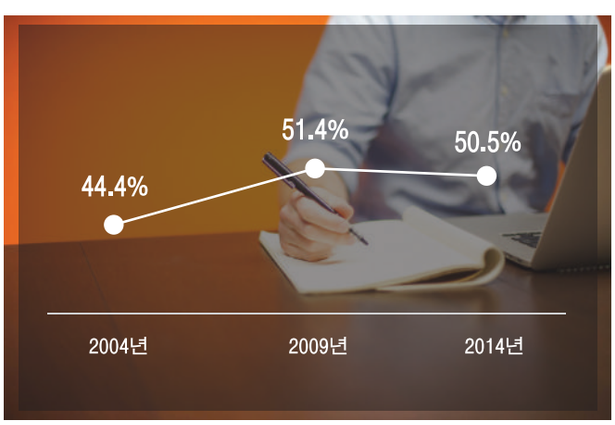
대전시 청년 실업률 8%, 고용률 42%
전국 청년 실업률 9.3%, 고용률 41.7%
(2015년 기준)

전국 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32.7%
대전 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35.2%
(2015년 기준)

연도별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 : 15~34세 기준



출처 | 통계청, 2015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
(15~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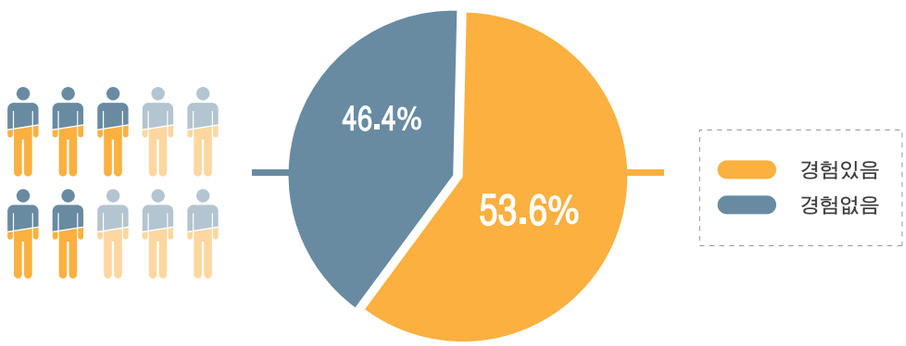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열정페이 세대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열정이라는 구실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임금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세대

"너 여기 돈 벌려고 왔니?" / "열정을 채워줄 테니 돈은 기대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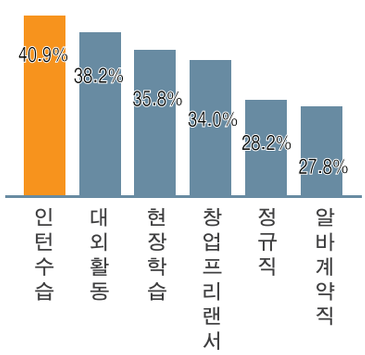
열정페이 경험



만 19-34세 청년 중 일 경험이 있는 5,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6%(2,799명)가 '열정페이' 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기서 '일 경험' 이란 인턴,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막론하고 학교 등의 교육기관 외에 청년이 일터에서 쌓는 모든 경험의 형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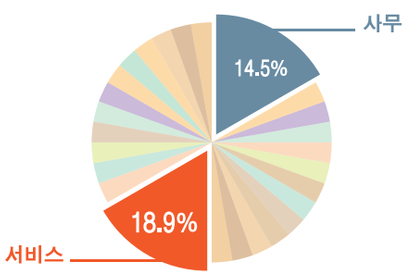
[일 유형별 열정페이 실태]

대상 : 일을 경험한 5,219명



[업종별 열정페이 발생률]

대상 :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인식한 2,127명



예술 공연 보건 의료 교육 경영 마케팅 영업 고객상담 생산... 등

출처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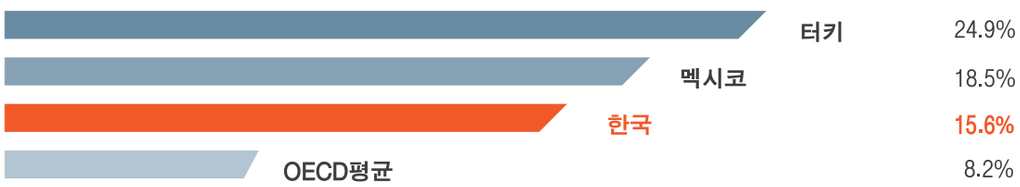
#소명세대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일이란 생계수단을 넘어서 자아실현의 의미가 더 크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의 소명에 따라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도 삶이 나아지리란
희망이 없는 시대 상황에, 체념에 빠진 청년들이 많다.

⋮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니트족 증가(N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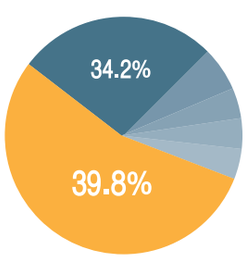


출처 | OECD, 2013

한국 청년층(15~29세)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15.6%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8.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취업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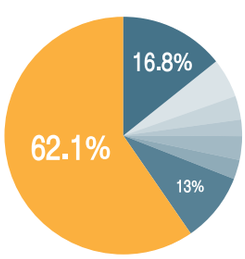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적성에 맞는 일

고용이 안정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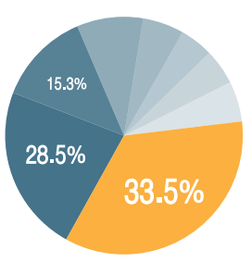
취업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심리적인 압박

정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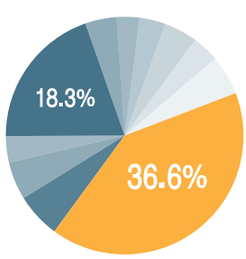
귀하는 어느 기관 취업을 선호하는가?



정부기관

공기업

어떤 업종에 종사하길 원하는가?



공공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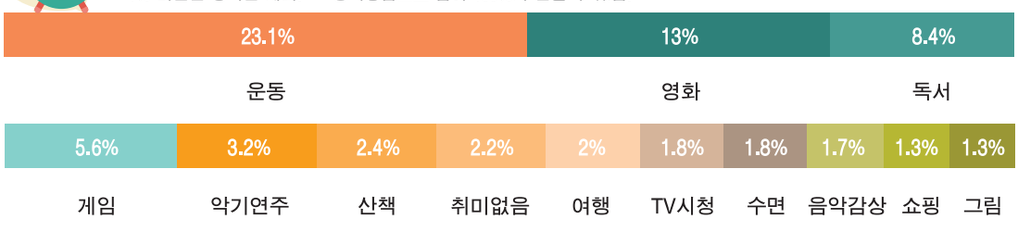
전문, 기술 서비스업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 흥미 또는 적성에 맞는 일이 약 40% 정도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용이 안정된 일이 34.2%를 기록했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일(10.9%)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요즘처럼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한 토대일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요구는 공공부문 취업 선호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62%의 청년들이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고 답했다. 기업체 입사 희망(32.7%)의 두 배 가까이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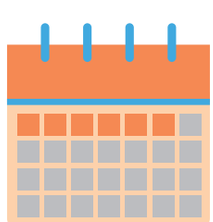
여가

취미로 무엇을 하는가?

*1% 미만인 항목은 제외. **중복응답으로 합이 100%가 안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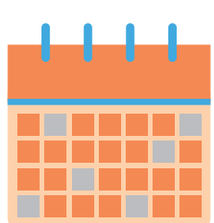


한 달에 여가를 즐기는 횟수



한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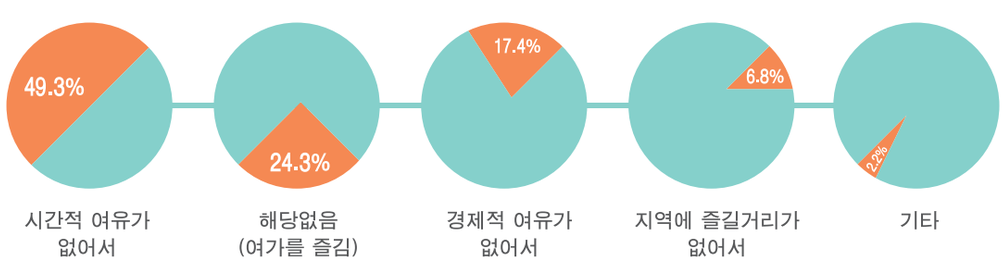
평균 5.8회



매일/자주
(여가를 즐기는 청년 비율)

4.32%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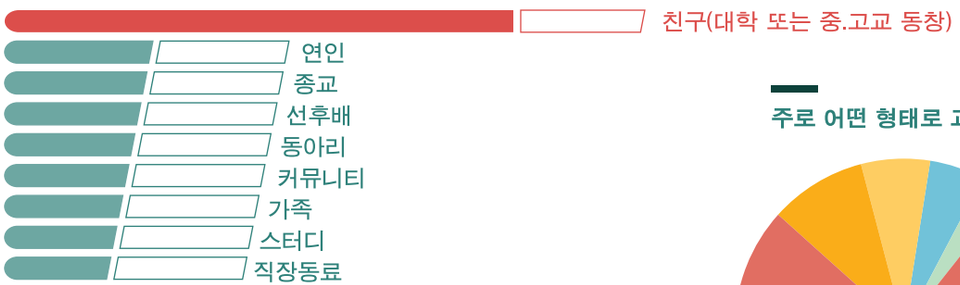


인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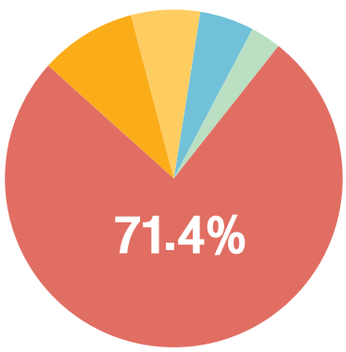
한 달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모임 횟수
업무적인 만남 제외

평균 7.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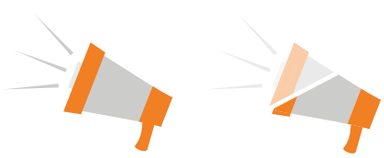
평소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가?



주로 어떤 형태로 교류하는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의 개수는 몇 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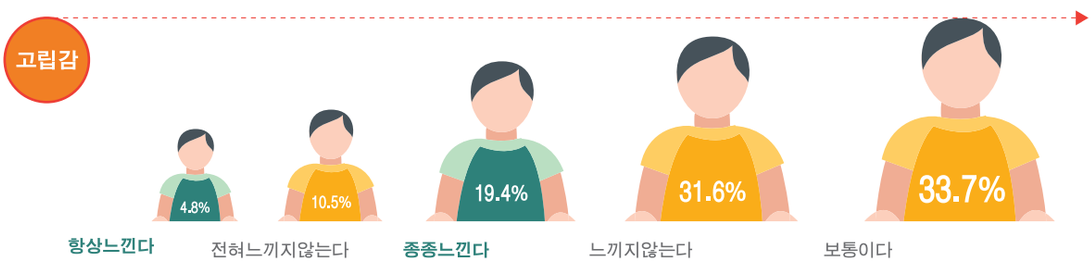


평균 1.7개

*0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다, 1개 25.3%, 2개 21.6%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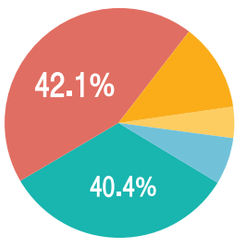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평균 5.3명 *0명, 이라고 응답한 비율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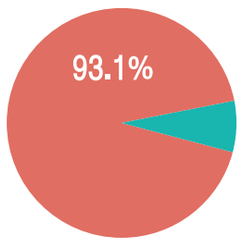
청년과 지역사회

대전에서 청년으로 사는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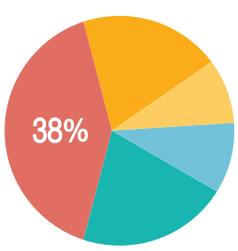
매우만족	6.8%
만족	40.4%
보통	42.1%
불만족	8.3%
매우불만족	2.5%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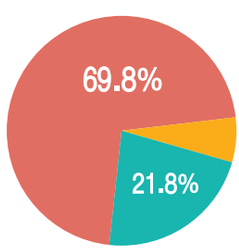
알고있다	6.9%
모른다	93.1%

지역사회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매우관심	4.1%
관심	26.7%
보통	38%
관심없다	26.2%
전혀관심없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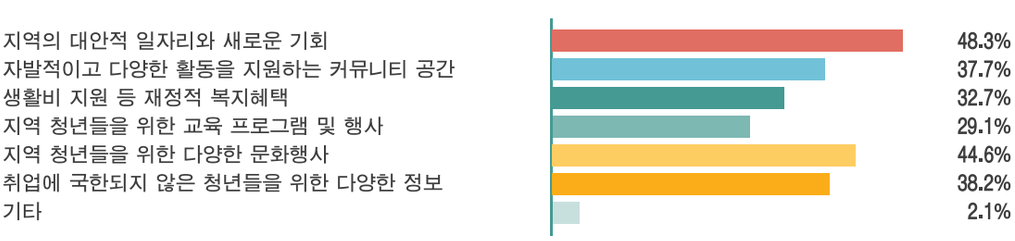
대전시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8.4%
아니다	21.8%
모르겠다	69.8%

70%에 가까운 청년들이 '모르겠다' 라고 답한 것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존재 자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전 청년 정책 현황

대전시 현 청년 정책과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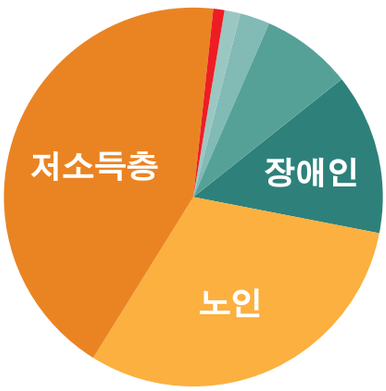
현재 대전시의 연령층별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정책을 제외하고 청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

2015 대전시 총 예산

총 5조 8,980억 원

시 본청: 4조 1,082억 원
자치구: 1조 7,898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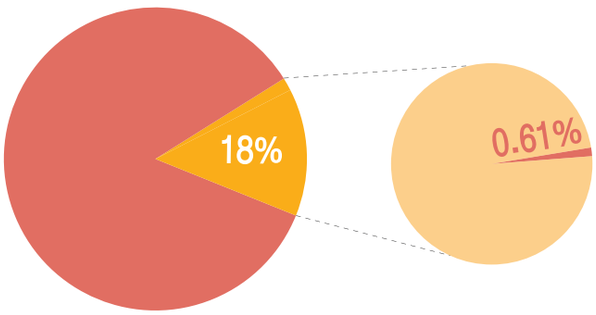
대전시 총 예산 중 계층별 지원 사업 예산 비율



영유아	1,009억 원	1.71%
청소년	209억 원	0.35%
노인	2,937억 원	4.98%
여성	125억 원	0.21%
장애인	1,316억 원	2.23%
저소득층	3,236억 원	5.49%
청년(19-39세)	64.85억원	0.11%

청년들이 유일하게 지원받고 있는 일자리 창출 예산 중에서도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 예산 대비 청년층 지원예산 비율



*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
  : 2015 총 예산 중 18% (1조 616억 4천만 원)
*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0.61%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

20.54% (1조 2,116억 원)

계층별 사회복지 예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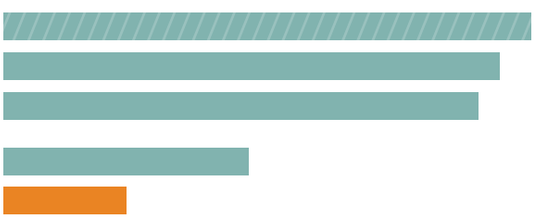
영유아 1,009 억원	8.33%
청소년 209 억원	1.72%
노인 2,937억원	24.24%
여성 125 억원	1.03%
장애인 1,316 억원	10.86%
저소득층 3,236 억원	26.70%

청년 0원 ⋮ 0%

※ 각 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 예산으로 재구성
백분율 수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 2015 대전시 살림살이, 대전광역시

OECD 가입국 중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순위



프랑스	31.9
핀란드	31.0
벨기에	30.7
에스토니아	16.3
한국	10.4

출처 | OECD, 2014

대전시 청년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임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청년 계층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최하위인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있다.

대전시 현 청년 일자리 정책과 예산

사업명	내용	예산(억)
계		64.85 (64억 8,500만원)
청년인력관리센터	청년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 전문기관 설치로 청년실업 해소	6
맞춤형 청년(대학) 창업 생태계 구축	대학 및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20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	청년 및 고졸 미취업자에게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9
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공급	4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지식서비스 분야 청년창업 지원	25
찾아가는 Good- Job 행복드림버스운영		자료미비
일자리종합박람회	구인구직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창업 정보제공으로 일자리창출 도모	0.85

※ 「2015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 추진계획」 중 청년 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내역을 발췌

출처 | 2015 대전시 살림살이, 대전광역시

앞서 살펴 보았듯, 일자리 창출 이외에 청년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전은 청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30.6%)이 높고, 저출산 · 주거 · 빈곤 등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는 '일자리 창출 개수' 와 같은 양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 저임금 · 고용 불안정 등 '일자리의 질' 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현재 대전시 정치 · 행정제도 내에는 청년층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청년의 '삶' 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는 복지 정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하다. 또한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은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편중

청년문제는 실업 외에도 주거, 저출산, 빈곤, 부채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청년문제에 대한 담론 및 대책은 취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곧 복지' 인 셈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인해 실업기간이 늘어나면서 학교에도, 직장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들이 급증하는 추세로,대학생 이외의 청년 중 정규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자발적 취업포기자(니트족) 등은 상대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 졸업 후 첫 직장 취업까지 평균 취업준비 기간 11개월,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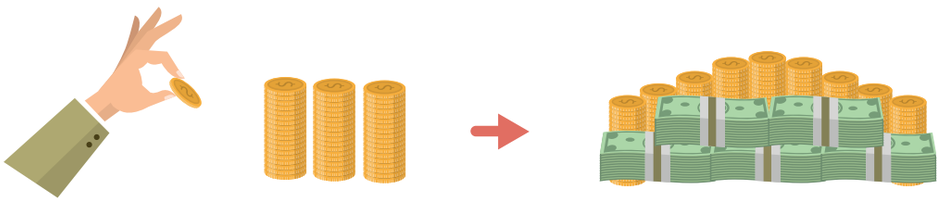
그러나 일자리 정책마저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적으로 양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 대전시가 청년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운영 중인 청년인력관리센터는 큰 틀에서 기존의 일방적인 취업 제공 · 알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들과 유사 · 중복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09년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 13년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누적 총 7조원의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투입 중이며, 2016년에는 2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피부로 와 닿는 취업 지원 정책이 되지 못하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존재 자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를 발생하게 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The problems that exist in the world today cannot be solved
by the level of thinking that created them.

- 아인슈타인 -

고용 창출은, 새로운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용 그 자체만 늘리려 하면 고용도 늘리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 당시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취업 제공 · 알선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잠재능력을 실현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경험과 '기회' 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정된 일자리에 청년들을 끼워 넣는 것에서 벗어나 '일거리' 를 발굴하고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자신의 업(業)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이 '도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위험(risk)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혁신과 도전은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안전망은 곧 혁신 안전망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복지가 국가에게는 자선이 아니라 '의무' 이며 국민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보편적 '기본권' 임을 방증한다. 특히 현대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 차원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미 국립조기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이나 아동에게 투자하면 1달러 투자에 3.78달러가 환원된다고 한다.



청년 '개인'의 문제로 한정

청년 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 청년은 하나의 계층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결국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 문제는 경제 · 사회 이슈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여러 부서가 연계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전시의 정치 · 행정 제도 내에서 청년층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청년의 이슈를 다루는 부서는 경제산업국 산하 일자리 정책과의 청년일자리 분야가 유일하다.) 청년 정책의 범위와 목표 및 방향, 청년의 권리와 시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조례)도 없다.
이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이 하나의 계층으로써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것과 대비된다. 대전시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보육정책과, 장애인복지과가 있어 각 계층에 대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공동체안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개인 단위가 아닌, 공동체 단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공동체 기반의 청년 정책은 협력과 연대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업을 찾고,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청년이 청년 문제해결의 주제가 되지 못함

청년들은 수동적인 객체로서 자기문제의 해결능력이 없는 미흡한 대상 혹은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년들의 시정 참여 채널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의 부재는 청년들의 진짜 니즈(정책적 수요)와 정책 간 괴리를 낳고 있다. 청년들의 사회적 성장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당사자 논의로부터 출발할 때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다.
청년 문제의 해결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탐색,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를 관(官)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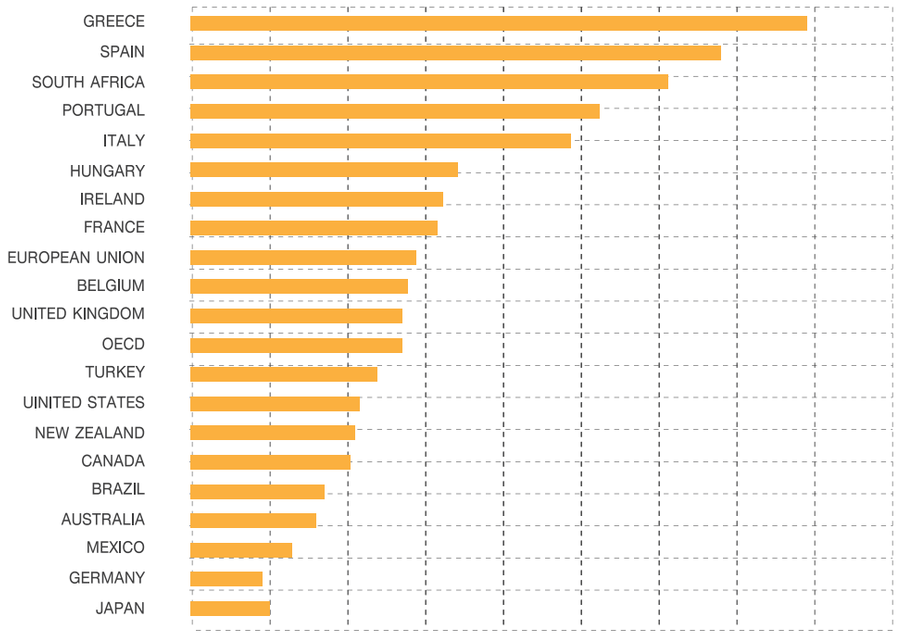
청년에게 노동시장에서 더 좋은 시작 기회를 부여

부록. OECD Youth Action Plan

청년에게 노동시장에서 더 좋은 시작 기회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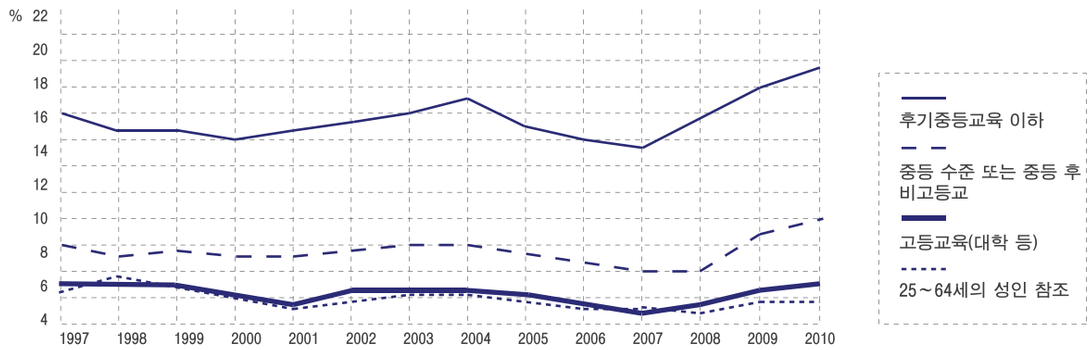
행동계획의 필요성

최근 세계경제위기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공받고 또한 커리어의 시작과 개발을 위한 더 좋은 여건을 제공받아야 함을 방증했다. OECD와 발전된 국가 경제권에서의 급격한 청년실업과 저고용 상태는, 수많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방해당하는 고착화된 장애를 초래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생산적이고 유의미한 보수를 제공하는 직업을 찾는 데에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아니며, 그 어려움의 범위와 수준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의 핵심이 모든 나라에서 존재함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는 장기간 높은 실업상태, 구직했을 때의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사회적 소외를 복합적으로 동반하는 것이다. 인구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때에, 청년층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편입은 그들의 고용전망과 복지수준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성장, 형평성 그리고 사회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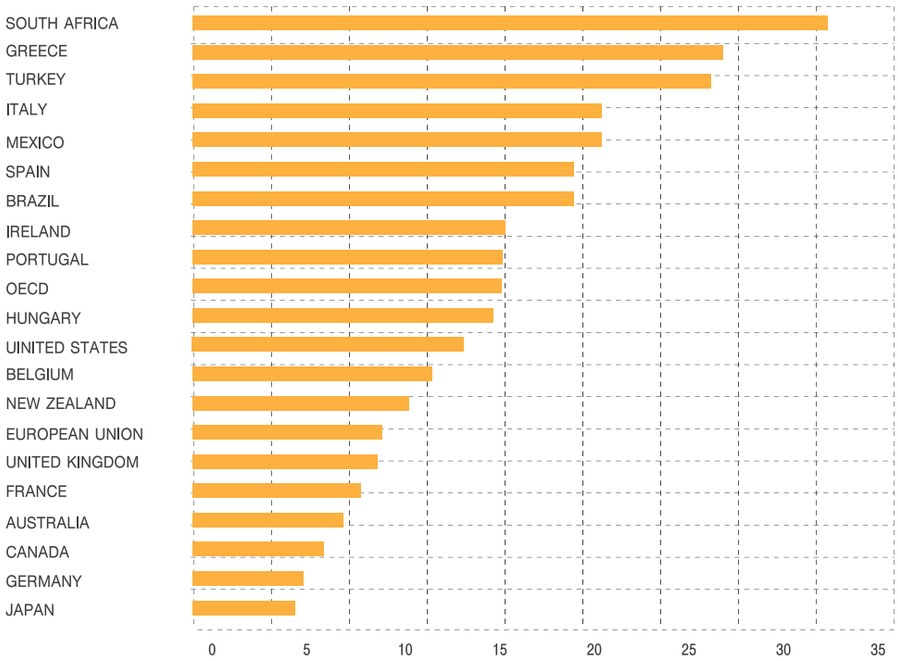
〈표 1〉 2013년 4월 15~24세 청년 노동가능인구 대비 실업률

많은 국가들이 이미 가파르게 상승하는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3년 4월, 그리스와 스페인 청년실업률은 60% 가까이 치솟았다. OECD전체는 16.5%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위기 이전 12.1%에 비해 다소 올라간 수치이며, 25세 이상청년의 실업률은 2.5배 더 상승하였다.
국가 정책은 공교육의 낮은 성취도와 교육체계와 직업세계 간의 큰 괴리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이들의 수치가 높다. 이는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력 약화와 저임금 노동에서 열악한 커리어를 유발할 것이다. 특히 만연한 실업상태를 떠안은 주류경제사회의 비공식적 섹터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예를 들어, OECD의 25~34세 청년들에게 있어 중등교육도 받지 못한 청년의 실업률은 대학교육을 받은 청년보다 2.5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2〉 각 계층별 25-34세 청년들의 실업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실업상태(Joblessness)가 일찍이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서부터 장기적 커리어 진로와 미래 비전까지 치명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들 중 고용(Employing), 교육(Education) 그리고 직업훈련(Training) 모두 없는 청년 이른바 니트(NEET)족들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OECD에서 이 그룹은 2012년 1분기 청년층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에서는 5분의 1,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분의 1 이상이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다.



〈표 1〉 2013년 4월 15~24세 청년 노동가능인구 대비 실업률

OECD 청년실천계획

이틀에 걸쳐 진행된 5월 29일 OECD 장관급 회의에서는 〈OECD 청년행동계획〉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조치를 채택하였다. 조치의 첫 번째 목표는 현존하는 청년실업 및 낮은 고용실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목표는 저숙련 청년들에게 적절한 직업능력을 갖추게 하고 고용장벽을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장기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OECD 청년행동계획의 주요 요소

현존하는 청년실업위기를 해결한다.

취약한 노동수요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실업청년들에 대한 적절한 소득지원책을 제공한다.
비용 대비 효율적인 노동시장 대책을 구축, 유지하고 가능할 경우 확장시킨다.
저숙년 청년들의 고용장벽을 제거한다.
고용주들이 견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장 및 지속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청년들의 장기고용 가능성을 강화시킨다.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청년들을 직업세계(World of work)진출을 위한 준비를 시킨다.
직업훈련의 역할과 효과성을 강화시킨다.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도와준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누구나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유용하게 고용시장으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정책에 대한 권고안

OECD는 필요한 국가들에 동 실천계획에 관한 심층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교육 조기이탈자를 줄이고, 청년 보장 계획의 실현, 직업교육훈련 강화 또는 청년창업의 증진을 도울 것이다.

*Youth guarantee scheme : 25세 이하 모든 청년 및 30세 미만의 대졸자에게 졸업 또는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교육 훈련, 견습과정 중 하나를 제안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

단기정책 보고서(Short policy notes)

단기정책 보고서는 핵심 정책과제를 규명하고 이러한 과제와 의미있는 행동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근 OECD 청년정책 종합 보고서에 조사되어 온 국가들에게 준비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2~3개월에 걸쳐 해당 국가에 단기적 체류기간 동안 중요한 정책결정 영향자(Key stakeholder)들의 컨설팅 과정에 의해 준비될 것이다.

국가별 조사

노동시장에서의 청년들의 더 좋은 시작을 위한 교육 및 노동개혁 여부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청년정책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소외청년계층에 더욱 초점을 두어 사회정책에 대한 OECD의 복합적인 조사과정이 동반될 것이다. 조사의 정확한 범위는 관련된 국가와 협의될 것이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조사는 사실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기초보고서의 준비,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세미나를 포함할 것이다.

여기서 저숙련 상태 또는 이민자 가정 출신과 같은 가장 취약한 청년그룹에 주목해야 하는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 노동시장 구조로부터 영원히 낙오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OECD의 능력개발전략(OECD Skills Strategy)에 따르면, 효과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적실성 있는 장관급 포토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술을 노동시장에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OECD 청년실천계획〉은 국가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기존의 대안을 지원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청년실업위기에 대한 행동 결의안(The youth employment crisis: a call for action)" 그리고 G20 청년고용 위원회(G20 commitments on youth employment)와 청년고용보장을 위한 EU이사회 협정(the EU Council's agreement on the Youth Guarantee)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청년혁신플랫폼 청년고리

청년커뮤니티 청수다와 청년고리가 함께 제작하였으며,
대전광역시유성구 의 2015 청년 취업, 창업 아이디어 사업 '꿈을잡고'의 지원금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발행 | 청년고리
발행일 | 2015년 11월
디자인 | 디자이너 신 영 현
공개그룹 | facebook.com/groups/Daejeon.youthlink